

종교교육학연구 제29권. pp.61-82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2. 28.

기독교 근본주의를 넘어서

-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교육적 대안 -

최 대 광

감신대 졸, 영국 Lancaster 대 종교학 Ph.D. 감신대 강사

〈요 약〉

이 논문은 근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고 생성원인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극복하고, 정확하게 이 현상이 왜 생겨났고, 사회와 문화에 어떤 효과를 만들어 나가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은 과학의 발달과 상대적 가치관이 확립되어 가면서, 부동의 실체 안에서 안정성을 찾으려는 것이 근본주의의 발생 원인이며, 이러한 보수적 가치관이 정치운동화 될 때에 마침내 근본주의라고 이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이 시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에 관해서 분석한다. 미국에서 근본주의가 발생한 원인을 현대주의에서 흔들리는 정체성과 대중화된 칼빈주의의 결합에서 찾고 있으며, 부시이후, 미국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어떠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이 논문은 어떻게 미국의 근본주의가 한국에 이식되었으며, 미국과 동일한 패턴으로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결론에서, 이 논문은 근본주의 상황에 대한 다원화된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친다.

핵심 주제어 : 근본주의, 종교, 문화학, 교육

들어가는 말

2008년 8월 28일에 불교계는 대통령과 현 정부의 종교편향에 대해 항의하는 대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대통령은 시장시절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으며, 담화문에서도 ‘거듭남’이라는 종교적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청와대의 기독교 편중인사를 지적하는 정확한

데이터도 있다. 대통령령인지 어떤지 몰라도,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들의 종교를 조사했는가 하면, 청와대 경호처 차장은 “모든 정부부처의 복음화가 꿈”이라고 했다 한다. 청와대 홍보기획경찰 복음화 금식 대성회를 알리는 포스터에서는 어청수 경찰청장이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와 나란히 실렸는가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대중교통 안내시스템에는 사찰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종교편향’의 외피적 사건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 현상보다 더더욱 본질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바로 기독교 ‘근본주의’가 그것이다. 근본주의라는 수식어는 문화의 다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종교적 영역 안에서의 근본주의는 정치와 경제의 제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정치지도자와 이를 지지하는 역시 근본주의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결합 속에서 이웃종교를 ‘타’종교화 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들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 글에서 밝히겠지만, 근본주의란 자신과 타자와의 ‘반 反’이라는 문법을 사용하며 자신을 정체화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보수적 물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적 기독교인 개신교 근본주의에 관해서 살펴볼 것이며, 이들의 기원과 한국에서의 근본주의 그리고 현재 이들의 운동에 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기괴한 현상에 관한 종교학적 답변을 시도해 볼 것이다.

몸 말

I. 근본주의: 정의

스티브 브루워와 다른저자들이 편집한 책, *미국식 복음의 수출 Exporting American Gospel*에 의하면, “종교적인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근본주의자’라고 불리워지기 원하는 사람은 없다”¹⁾라고 했다. 기독교인일 경우 “복음적 기독교인” 혹은 보수적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으로 불려지길 원한다. 그렇지만, 앞으로 논의해 나갈 것 이지만, 한국교회는 ‘보수’적 경향을 넘어서 근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근본주의 Fundamentalism의 원형은 20세기 초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발행된 팜플렛에서, *근본: 진리를 향한 증언 The Fundamentals: A Testimony to the Truth*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근본주의자들은 당시 성장하고 있었던 현대주의 modernism에 대한 반발로, 양보할 수 없는 5가지의 기독교 교리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성서 무오설, 그

1) Brouwer, Steve and Others, *Exporting American Gospel*, (London: Routledge, 1996), p. 263.

리스도의 신성과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심판을 위한 재림, 사탄과 비 기독교인들의 멸망, 예수를 믿는 자들의 부활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²⁾이었다. 스티브 브루스는 이 5가지 교리를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기서는 당대의 선도적인 보수적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이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당시의 시대정신에 반한 핵심적 개신교 진리를 이해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그리하여서 그 용어(근본주의)는 개신교의 반 현대주의적 부류들과 의식적으로 동일시 한 것 이었다. 또한 그 용어는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믿음을 썩여진 것이다.³⁾

자유주의적 / 진보적 기독교인들과 자신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다섯 가지의 교리 중에서 “‘성서 무오설’과 불신자들의 멸망, 그리고 임박한 지구의 종말”이 자신들과 진보적 기독교인을 ‘구분’짓는 가장 명확한 구조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은 해석적 차이점이 있을지라도, 진보적 / 자유주의적 기독교인들 역시 동의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성서무오설은 성서의 모든 말씀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씌여졌다는 것으로, 결국 성서의 일점 일획도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불신자들의 멸망과 임박한 종말은 근본주의자들 자신들과 비신자들 그리고 자유주의적 기독교인들을 ‘구분’시켜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본다면, 근본주의는 자유주의에 대한 ‘반’을 통한 정체성의 확립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틴 마티와 스코트 애플바이가 공동으로 작업한 시카고 대학의 근본주의 시리즈 중에서 *근본주의와 국가 Fundamentalism and State*에서는 그 ‘반’이 나온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종교적 근본주의는 20세기에 종교 공동체 안에서 어떤 대변인격 되는 사람이나 운동으로 구체화된 일종의 성향이나 정신적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가려고 했던 것이다. 이 정체성이 현대에 있어서 흔들린다 생각될 때, 그들은 과거의 교리, 신앙, 의례를 신성화하며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수정된 ‘근본’들은 정체되고, 다듬어지면서 인정받게 된다. 그들은 외부의 혼합적인, 반종교적인, 비종교적인 문화상황에서 신자들을 위협하는 외부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성곽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⁴⁾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이성의 확장되면서, 과거 神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과학적 이성 혹은 아도르노와 홀크하이머의 언어를 빌려 말하자면 “도구적 이성”으로 전이되게

2) McGrath, Alister, *Modern Christian Thought*, (London: Blackwell Publishers., 1993), p. 230.

3) Bruce, Steve, *Fundamentalism*, (MA:Blackwell, 2000), p. 10-11.

4) Marty E. Martin and Appleby R. Scott, *Fundamentalism and the State*,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 3.

되었다. 이들의 작품인 ‘과학’은 기술을 생산해 내었고, 인간은 신과 자연에게서 점차로 독립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과 그 작품들이 신이라는 기표signifier에 기의 signified된 완전함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것이었다. 더군다나, 신을 믿고 있었던 과거의 ‘관성’과 이성을 통한 신적 영역의 파괴는 서로 대립하면서, 정체성 혼란 혹은 분열이라는 독특한 현대적 경험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마살 버만은 이러한 이중적 체험을 괴테의 파우스트를 통해서 간파하고 있다. 파우스트의 끝부분을 소개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에 파우스트는 세상으로부터 물러서라는 위협을 받는다. 때는 부활절 주일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짧은 시간의 햇빛을 즐기기 위해 물밀듯이 성문을 빠져나오고 있다. 파우스트는 군중—자신이 어른이 된 이후에는 철저하게 회피했던 군중—과 함께 나타나게 되며 군중의 생동감과 색조와 인간적인 다양성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활기차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파우스트는 새로운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자기 자신이 새로운 형태의 절망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뿐이었다.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기간에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표류했던 것처럼 자신을 더 이상 표류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파우스트는 수도원처럼 평화로웠던 어린시절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⁵⁾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았던 파우스트는 ‘부활절’날 군중들과 함께하나, 결코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 갈 수 없음을 파악한다. 이에 관하여 버만은 다음과 같은 주석을 가하고 있다:

고전적이고 중세적인 영역을 훨씬 능가하는 인간적인 욕망과 꿈의 영역과 깊이를 열어 놓은 문화에 파우스트는 참여하게 되고 그러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동시에 그는 중세적이고 봉건적인 사회형태, 그 자신과 그의 아이디어를 철저하게 차단시켰던 길드를 전문화 한 것 과도 같은 형태에 여전히 휩싸여 있는 침체되고 폐쇄된 사회형태의 일부분에 해당하기도 한다. 침체된 사회에서 역동적 문화의 수혜자로서 그는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 사이에서 분열하게 된다.⁶⁾

고전적인 문화, 혹은 종교적 체험에 참여했다가, 이와는 다른 폐쇄적 사회조직에 자신의 ‘육체’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괴테는 파우스트를 통해 분열하였다고 한다. 현대인들은 신성의 체험이나, 움직이지 않는 ‘안정감’의 체험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의 한정된 사회구조나, 한시적인 사상과 문화와의 체험을 만나면서 분열하게 된다. 과연 초인이나 영웅이 이를 극복하게 해 줄 것인가? 그렇지만, 이 현상에 ‘저항’하면서 근본주의는 탄생한다. 근본주의는 ‘현대성’에 의한 분열된 정체성에 대한 ‘반’의 작용으로 성립된다. 현대성을 체험할 때,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언하면서 ‘초인’을 외쳤던 것과는 달리,

5) 마살 버만, 윤호병, 이만식 옮김 『현대성의 경험』, 서울: 현대미학사, 2004, 72-73쪽.

6) Ibid, 69쪽.

근본주의자들은 ‘움직이지 않는’, ‘과거’와 ‘전통’으로 회귀하면서 현대성에 당황한 자아의 정체성에 ‘성곽’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과거의 교리, 신앙, 의례의 의미를 덧붙여” 이를 강화 한다. 그들의 심리 속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즉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가 시작 되면서, 다수의 학자들은 종교시대의 종언을 예언하였고, 세속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이미 20세기를 경험한 우리들은, 지난세기는 인류의 역사상 종교가 가장 왕성하게 발전한 시기였다는 것을 목격했다. 전통적 정체성의 근간을 흔드는 시대풍조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인간들 이 문화에 떠다니지(free floating) 않으려 하고, 고정된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나, 절대 타자인 神에게 자아를 맡기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폴 힐라스와 린다우드헤드가 편집한 *현대의 종교 Religion in the Modern World* 에 의하면, 근본주의(그들은 이를 “차이점 중심의 종교” religion of difference라고 부른다)적 종교 형태는 20세기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종교 형태라고 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⁷⁾ 낸시 애멀만의 글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근본주의는 신뢰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세상에서 자신이 떠밀려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버팀목을 제공해 준다. 또한, 이러한 심리적 요구를 충족하는 사회적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가 그대로 있는 것보다, 변화되었을 때, 신뢰감은 감소된다. 이동과 이혼이 심화되어 인간관계가 불연속적으로 바뀐다는 느낌을 때라던가 갑작스런 기술변화가 인간의 적응능력을 넘어설 때, 인간들은 자신들이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갖는다. 이러한 시점에서, 근본주의가 성장하는 것이다. 근본주의는 사회적 가치와 삶의 방법들이 변화하는 곳에서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게 된다. 또한, 중산층의 문화에 비교적 최근에 입문한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그 위치에 있기 위해 삶을 지탱하던 방식들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당황하게 된다.⁸⁾

낸시 애멀만은 근본주의가 사회 전체의 변화적 시점에 대한 ‘반’으로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한 심리적 차원이 증폭될 때에만 중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들이 새로운 문화 곧 중산층이나 (혹은 그 이상의 문화에) 편입될 때에도 역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라고 한다.

몸말을 시작할 때, 필자는 ‘보수주의’와 ‘근본주의’와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금껏 논의된 바로는 보수주의와 근본주의의 정확한 차이점을 파악할 수 없다. 그

7) Heelas, Paul and Woodhead, Linda, *Religion in Modern Times*, (London: Blackwell 2000), p.52 “... 차이점 중심의 종교가 현대에 있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자동화되고 다원화된 그리고 혼돈된 현 세계에서 일련의 피난처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8) Ammerman Tatom Nancy, *Bible Believers: Fundamentalists in the Modern World*, (London: Butgers University Press, 1987), p.192.

러나 스티브 브라우어는 양자의 차이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들이 근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사회 / 정치학적 운동에 관여할 경우 (때때로 아주 강력한 민족주의적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해당한다.”⁹⁾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라는 정의의 definition은, 세속적으로 타락해 가는 사회, 삶의 가치와 인간관계가 쇠락해 가고 여기에 따라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사회를 ‘정화’시켜, 과거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운동’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보수주의자들은 홀로 과거 전통이나 경전으로 사상과 삶의 방식을 회귀하여 소극적으로 현대주의에 대항하려 했다면, 근본주의자들은 개혁적이나 자유주의적인 입법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다.

II. 미국의 근본주의

미국의 초창기 국부들 중 한명인 벤자민 플랭클린은 칼빈주의가 배경인 전형적인 청교도 집안의 사람이었고, 미국 자본주의의 성립과 개신교와의 관계를 연구한 막스 베버의 고전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도 벤자민 플랭클린의 금욕주의를 모델로 펼쳐진 글들이다. 안소니 기든스는 막스 베버의 책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베버는 칼빈주의안에 내재하는 요소들 중 특이한 부분을 축출해 내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된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라는 선택교리이다. 칼빈 스스로는 신성한 예언을 주장하면서 그의 구원을 확신했을 것이나 그의 추종자들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베버에 의하면 이러한 극단적인 비인간론에서 신의 절대적 주권에 굴복하는 인간들은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내면의 고독이었던 것이다. 베버의 주장에 의하면, 이 고독으로부터, 자본주의가 탄생했다고 한다. 이로부터 두 가지가 발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로는...자신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를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세상적 삶에서 ‘선행’이라는 것이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맑은 정신으로 노동에 참여하여 부가 축적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윤리적 구원이 확증된다는 것이다. ‘부’는 무분별한 쾌락이나 중독적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모두 허용된다.¹⁰⁾

즉, 선택의 기준은 건전한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이 자신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기든스가 베버의 글에서 간파했듯이, 자본주의 정신은 ‘고독’ 즉 구원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된다. 구원에 대한 ‘불안’은 새로운 사상과 혼돈되는 가치

9) Brouwer and Others, *op. cit.* p.264.

10) Giddens, Anthony, Introduction to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London: Unwin, 1904), p.xiv.

관이 생성되면서 더더욱 가속되고, 삶과 죽음의 실존적 영역은 주관적 ‘노동’이라는 차원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노동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의 ‘부’가 곧 ‘구원’의 확증이라는 도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부’에 초점을 맞춘 ‘노동’은 초창기 미국의 구원신화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개인적 구원의 담론이 스티브 브로우워에 의하면 국가주의적 정체성으로 확산된다: “하나님께서 미국과 각 개인들을 위한 계획은 힘의 지배와 끊임없는 성장과 풍요를 약속하는 것으로 이해된 미국의 근본주의는, 미국 역사를 추진하는 동력이었다”¹¹⁾고 한다.

하나님의 개인적 부의 확장을 통한 선택이 ‘미국’으로 확산 되었으며, 이러한 국가주의적 정체성은 미국에 ‘반’하는 존재는 하나님에 ‘반’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담론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선교정책을 민족주의와 이를 정치운동의 확장으로 이해한 제럴드 앤더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890년에 미국이 현재의 영토를 차지했을 때, 자신들의 영토를 미국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하려는 욕구가 있었다. 미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나라이며 또한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방향대로 끝고나갈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의 운명적 교리는 앵글로 색슨족의 민족적 우수성에 기대고 있으며, 미국은 서쪽으로 향하는 문명의 중심에 서있고, 미국의 정치구도는 탁월하고, 미국의 개신교는 순수하고, 영어는 모든 인류가 배우기 원하는 언어라는 것이다.¹²⁾

제럴드 앤더슨에 의하면, 선택된 사람들은 미국을 구성하는 시민 전체가 아니라, 앵글로 색슨계 개신교도로 한정된다는 담론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콜로라도주의 주지사인 윌리엄 길핀은 1846년에 주지사에게 보내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고 한다:

미국 국민의 운명은 이 대륙을 정복하는데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의 사회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불멸의 임무!

세계의 국가들이 이 문명의 질서에 편입될 때 미국은 각 국가들의 주체가 될 것이며, 전 세계를 산업으로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¹³⁾

당시의 근본주의적 설교자인 조시아 스트롱(1847-1916)은 앵글로 색슨족의 우수성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미국이라는 담론을 기초로 미대륙 전체를 돌며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11) Brouwer and others op.cit. p.13.

12) Anderson, Gerald H., “American Protestants in Pursuit of Mission: 1886 - 1986,” in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 12, (1988), 98 Quoting, Smylie, John Edward, “National Ethos and the Church” in Theology Today, 20, no. 3 (1963), p.314.

13) Ibid. p.15.

그의 책, “우리나라”와 “새시대: 다가올 나라”는 “175,000권이 팔려 나갔다.”¹⁴⁾ 이와 비슷한 시기에, 우리에게도 낯익은 이름인 드와이트 무디의 전국적 부흥회는 선풍적 인기를 끌었는데, 그의 설교의 핵심은: “미국의 우수성과 개인적 구원과 복음주의에 초점을 맞추었고, 바로 이것이 근본주의적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사항이었다. 이는 성서의 무오설, 반 역사주의, 반 과학주의, 전 천년주의적 위기였다.”¹⁵⁾ 무디의 근본주의적 사상에 핵심으로 등장했던 메시지는 “나는 기독교인이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본 사람이 없습니다”¹⁶⁾ 였다. 즉,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된 담론이 19세기에 걸쳐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무디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은 미 대륙을 넘어 전 세계로 미국 근본주의를 확산시키게 된다. 마크 놀은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디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네트워크가 성립되었으며, 이는 선교의 운동으로 확산 되었다. 장로교인인 피어슨 A.T. Pierson은 1880년대에 선교사 협회를 창설하였으며 약 3000명의 선교사 지망생들을 선발되었다. 피어슨은 또한 1895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중 하나인 아프리카 내륙 선교협회를 창설하였다. 보스턴의 침례교 목사인 고든 A.J. Gordon은 1889년에 보스턴 선교훈련원을 창설하여, 여성 평신도들을 선교지에 보내는 역할을 담당했다. 1890년에는 심슨 A.B. Simpson이 해외 미션 네트워크를 창설하였으며 미국 내 선교협의회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존 모트 John R. Mott는 피어슨에 의해서 북미의 선교에 선 발되었고, 선교 지원의 필요성을 미 전역을 돌며 전파하기도 하였다.¹⁷⁾

무디에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에 의해, ‘미국적’ 기독교인 근본주의가 단지 미국에만 머물러 자신들의 개인적 /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한 단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의 국가 확장주의에 ‘반’하는 이데올로기, 곧 사회주의권과 이들의 이념을 흡수한 미국 내 그리고 세계 내 진보세력들, 기독교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토착종교 등은 모두 타도되어야 하는 존재로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들을 ‘해결’ 해야만, 개인적 / 국가적 ‘불안’이 해소되고 미국의 청교도주의에서 파생된 “하나님의 개인적 / 국가적 선택”이라는 신화적 담론에 ‘안정되게’ 회귀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 신화적 담론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논문의 앞부분에서 밝혔듯이, 근본주의자들은 스스로가 ‘근본주의자’라고 불리기보다는 ‘복음주의자’라고 불리길 원한다고 했다. 이미 미국에서 부시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14) Ibid.

15) Brouwer and others, *op.cit.* 23.

16) Ibid. Quoting, Rifkin, Jeremy (with Ted Howard), *The Emerging Order: God in an Age of Scarcity*, (New York: Putnam, 1979), p.155.

17) Noll, Mark A.,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2), p.291.

하였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동성연애 반대 입법에 로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로 당선 되었지만, 2008년 8월 당시 미국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의 메케인 후보는,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선을 위해서 두명의 유력 대통령 후보가 교회의 ‘목사’를 만나서 그들의 ‘신앙검증’을 받았다는 것은,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하는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릭 워렌 목사는 오바마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 주목된다. 이에 관한 글을 읽어 보도록 하자:

지난 주말 새들백교회 시민 포럼에서 존 매케인과 버락 오바마 대선 후보를 인터뷰했던 릭 워렌 목사가 낙태 찬성론자인 오바마 후보에 대해 생명을 보는 관점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워렌 목사는 이 포럼에서 낙태 문제와 관련,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한 오바마 후보의 견해를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바마 후보는 “그것은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만 답했다. 워렌 목사는 포럼 이후 가진 인터뷰에서 “오바마 후보는 이 문제에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의 답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어느 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죄송합니다.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 이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라고 답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렌 목사는 오바마 후보가 정확히 어떠한 단계를 생명의 시작으로 본다는 식의 분명한 답을 해 주기 원했다며 “미국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에 단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답변이 못 된다”고 밝혔다. 워렌 목사는 그 자신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복음주의 유권자들이라면 그들의 신앙적 가치에 기반을 둔 결정을 내릴 것이며, 그 결정의 중심에는 낙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들(복음주의 교인들)이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면 그들에게 낙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홀로코스트와도 같으며, 홀로코스트 지지자에게 표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워렌 목사는 포럼 다음날인 17일 주일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지도자(The Kind of Leader America Needs)’란 제목의 설교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이 설교에서 성경적 지도자란 하나님이 축복하는 지도자라며, 교인 각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설교에서 후보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후보들을 보면서 그의 삶이 일관성과 겸손한 헌신, 관용의 실천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원의원 가운데 가장 급진적 성향의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오바마 후보는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중 낙태 규제에 반대하는 유일한 낙태 찬성론자다. 반면 매케인 후보는 상하원의원 25년 경력을 통틀어 낙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포럼에서도 워렌 목사의 동일한 질문에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명확히 답한 바 있다.¹⁸⁾

릭 워렌 목사는 ‘검증’이 끝난 후, 간접적으로 지지후보를 밝히고 있다. 특히 오바마는 자신이 이슬람으로 ‘오인’되었으며, 릭 워렌 목사와 청중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고 한다. 신앙은 형태는 더 이상 개인적 고백의 양태가 아닌 정치현상으로 뒤바뀌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종교는 정치의 한 복판에 개입하는 ‘근본주의적’ 형태가 현재 미국의 ‘주

18) 〈매케인·오바마 “신앙 같지만 정책은 달라”〉 《크리스천 투데이》, 2008년 8월 18일 제 4면.

류’ 기독교적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케빈 필립스는 그의 책 “미국의 신정정치 American Theocracy”에서 부시정부가 추진하는 ‘신정정치’의 독특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알다시피 석유는 20세기 미국의 세계지배에 중요한 연료이다. 그렇지만, 그 이전, 19세기에, 영국은 석탄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으며, 17세기 네덜랜드는 해상을 통한 무역에 힘을 얻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국가들도 새로운 에너지가 발견되었을 때, 세계를 지배하는 리더쉽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 미국은 전 세계 유전지대 그리고 지상과 해상의 송유관에 군대를 파견하여 보호하고 있다... 2000년과 2004년의 대통령선거에서, 3가지의 요소가 점점 더 중대하게 되었다. 1) 미국의 석유 채벌들 2) 교리적으로 견고하며 대규모의 선거인단을 가진 기독교 우파 3) 월스트리트에서 과거의 이미지를 넘어서 부채담당 회계섹터 등이다.¹⁹⁾

과거 칼빈의 신정주의 도시 제네바에 비해 미국은 너무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3가지의 컴비네이션, 곧 “석유, 기독교우파, 부채” 등이 미국의 정치를 이해하는 키워드라는 것이다. 특히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이유는 위에서 밝혔듯이 ‘선거인단’들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가지의 결합이 미국 공화당의 핵심사항이다”²⁰⁾라고 공언하고 있다. 여기서 ‘기독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위에서 밝혔듯이, 근본주의적 기독교이다. 이들의 존재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004년 대선에서 복음주의자들은 75%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찍어 그의 재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²¹⁾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립스는 부시정권을 “신정정치”라고 한 것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기독교 근본주의와 보수주의와 다른 점은 그들의 신념을 정치운동화 한다는데 있다. 이 ‘순수한’ 교리의 관철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것은 세속화된 사회와 가치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사회에 ‘반’한 자신들의 가치관과 영역을 확보해야만 한다. 나아가, 이 순수성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정치적 운동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신화화된 미국의 패권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본주의가 한국에 이식되었던 경로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통해 본다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본주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9) Philips, Kevin, *American Theocracy: the Perils and Politics of Radical Religion, Oil and Borrowed Money in the 21st Century*, (London: Penguin, 2006) p.viii~xv.

20) Ibid.

21) <맥케인 · 오바마 복음주의자 잡아라> 《중앙일보》 2008년 7월 1일자 17면.

Ⅲ. 한국의 근본주의

위에서 언급한 무디의 근본주의와 세계선교의 영역이 확장될 당시에 조선에 대한 선교는 시작되었다. 초창기 선교사들에 대한 각론적 비평은 지면관계상 불가능하지만, 그들이 남겼던 조선과 이의 종교문화에 대해 남겼던 글들은 그들의 근본주의적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다. Korean Repository라는 잡지에 기고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미국의 한 선교사는 당시 조선의 통치 이데올로기였던 유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1. 유교는 믿음을 쇠약하게 하고 점진적으로 파괴시킨다. 이는 불가지론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유교에 심취한 사람이라면, 빵과 버터와 같은 물질적 세계를 넘어선 진리를 믿기 어려워진다.
2. 유교는 거만함을 키운다. 더더군다나, 유교는 사물과 (영)의 차이점을 간과하게 한다.
3. 유교는 인간보다 더 이상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적인 혹은 신과 같은 인간을 형성시키지 못한다. 유교의 추종자들은 윤리적일 수는 있다. 한편으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출발이며 종착역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4. 유교는 이기적이거나 이기적인 요소를 키운다. 유교는 결코 능동적으로 가서 가르치지 않고, 와서 배우라는 식이다. 인간으로 이루지 못할 ‘중용’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을 쪼스럼게, 쪼게, 계산적으로, 그리고 보복적으로 키워나간다.
5. 유교는 효도를 가장 큰 덕목으로 치켜세우지만, 그리고 불효라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모든 유교적 구조는 여성을 이차적으로 노예적으로 객화시키면서 윤리와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6. 유교는 ‘율법’으로 사람이 선행진다고 한다.
7. 공자 자신이 국가에서 관료가 되기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예증이다. 나는 그의 삶의 모티브가 관료가 되기 위한 노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²²⁾

물론 철저하게 자의적인 왜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유교를 선교에 ‘반’한 세력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교를 ‘정복’하지 않고는 한국의 선교가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것이다. 초창기 선교사 중 한명이었던 빈턴 C.C. Vinton은 한국의 무속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종교에 대해서 결코 무지하지 않다. 만일 국가에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신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지역, 산, 강, 들, 나무, 바위는 신령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들은 농작과 교통, 탄생, 죽음, 결혼등과 같은 모든 영역을 관장한다고 한다. 그 신봉자들은 만일 그 귀신들에게 의논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무시한 죄로 재앙을 당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바쳐야 한다. 정령을 숭배하는 것은 모든 땅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중대한 일인 것이다.²³⁾

22) Hulbert H.B?, *Confucianism in Korea in The Korean Repository*, November, 1894, p.403 - 404.

이 글의 제목은 “한국 선교의 방해물들”이었다. 그러니까, 위의 선교사와 같이, 기독교에 ‘반’하는 것으로 무속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다. 조선이 이렇게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근대화를 겪지 못했고, 민중들은 가난한 삶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피스는 유교와 무속을 두고 아예 “한국의 악마들”²⁴⁾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으며, 같은 책에서, 한국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가 배재학당을 세우기 위해서, 마을의 수호신적인 나무를 베어 버렸을 때, 그를 “문명의 선구자”²⁵⁾라고 치켜세웠다. 결국 근대화된 교육은 기존에 있는 종교적 가치체계를 완전히 ‘정복’하고 미국과 같은 기독교 중심의 근대화된 자본주의적 국가를 확립 시켜야만 한다는 담론을 깔고 있는 것이다. 한국선교의 ‘시초’는 이미 다수의 ‘미국’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으며, 그들의 배경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대규모 근본주의 집회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한 선교사 “우리가 가르친 것만...”

이미 폴 힐라스와 린다 우드헤드의 공저에서 차이점 중심의 종교, 곧 근본주의적 기독교가 현대의 사회에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한 기독교의 한 형태라고 언급 하였듯이, 한국에서도, 대형교회의 주류는 근본주의적 기독교이다. 이원규는 *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 연구*라는 기사연 자료를 인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한다:

성경은 자자구구 하나님의 말씀이다(축자영감설)라는데 대하여 평신도의 92.3% 목회자의 84.9%가 동의함으로 축자영감적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신학적, 교리적 입장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동정녀 탄생)는데 대하여 평신도의 96.3% 목회자의 98.3%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 이야기는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다”는데 있어서는 평신도와 목회자의 94.6%가 각각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평신도의 66.9%, 목회자의 74.6%가 구원은 “개인이 구원받고 천당가는 것”이라고 봄으로서 구원의 확신은 강하면서도 개인영혼의 구원을 구원이라고 보는 근본주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타종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평신도의 62.6% 목회자의 70.9%가 “기독교의 진리만이 참 진리”라는 배타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배타주의 성향은 다른 종교들에 비해 개신교가 월등히 강하며, 보수교단의 경우, 그리고 종교성이 강할수록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⁶⁾

위에서 이미 마틴 마티와 애플바이가 근본주의자들이 “외부의 혼합적인, 반종교적인, 비종교적인 문화상황에서 신자들을 위협하는 외부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성곽의 구

23) Vinton, C.C., *Obstacles to Missionary Success in Korea in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December, 1894, p.841.

24) Griffis, William E., *A Modern Pioneer in Korea: The Life Story of Henry G. Appenzeller*,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12), p.232.

25) Ibid. p.224.

26) 이원규, 「개신교 근본주의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이해」, 『신학과 세계』 1995년 봄 30호 223-224쪽.

실”을 한다고 했듯이, 한국의 근본주의자들은 축자영감설을 굳건한 성곽으로 여기고 있으며, 타종교에 대한 배타주의적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1992년에는 김홍도 목사는 “감리교 교리수호”라는 표제를 내걸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변선훈 교수를 출교시킨 적이 있었다. 이유는, 그가 “혼합적인, 반종교적인, 비종교적인” 문화를 퍼뜨려서, 기독교에 ‘반’하는 타종교 (특히 불교)화의 ‘구분’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변선훈 교수를 출교시키는 데 앞장섰던 김홍도 목사의 설교를 들어 보도록 하자:

자유주의 신학은 사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데 가장 큰 도구입니다. 따라서 신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큰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교회 하나만 파괴되지만 교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가 잘못되면 수많은 잘못된 목회자를 양성하여 다량으로 교회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²⁷⁾

이 설교에서 김홍도가 말하고 있는 자유주의신학은 사실 변선훈의 종교다원주의를 겨냥하고 있으며, 변선훈을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큰 종”이라고 하고 있다. 그는 사탄을 “교회를 정제시키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인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교인이 주는 것은 사탄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는 신학적 논리보다도 경영학적 논리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의 설교를 더 들어보도록 하자:

구라파의 교회들을 가보면 한때 수천 명씩 모이던 거대한 교회들이 몇십 명도 안 모이는 작은 교회들이 되었고, 이제는 여행객들의 방문 장소에 지나지 않고, 볼펜 같은 기념품이나 팔아서 유지비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십년 전부터 횡행하던 다원주의니 포스트모더니즘이니 하는 자유주의 신학 영향 때문입니다. 구라파의 교회들을 주인 Satan의 역사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교회들을 죽여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 하나는 미국이나 호주나 연합자가 들어간 교회는 더욱 빨리 쇠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죽어가는 교단끼리 뭉쳐나 보자 해서 폭넓게 수용을 잘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고 합치기만 잘하는 것입니다.²⁸⁾

김홍도 목사가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을 두고 한 말이다. 이들이 마치 유럽에서 출발하여 유럽의 교회를 죽이고, 미국의 교회도 죽이며 결국 한국의 교회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다원주의신학은 유럽의 산물이 아닌 미국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현대의 역사를 사탄과 성령의 싸움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여타 근본주의자들과 같이 역사를 섭리적으로 해석 dispensationalist Interpretation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

27) 김홍도, 『자유주의 신학은 사탄의 가장 큰 도구,』 『불기둥20』, (서울:불기둥사, 1993), 61쪽.

28) Ibid. 61-62쪽.

표적인 대형교회를 담당하였던 조용기 목사의 다음과 같은 설교는 아마도 이들 역사관의 보편적인 틀일 것이다: “마치 군사작전과 비슷합니다. 이걸 우리가 싸우는 전쟁입니다. 적은 마귀입니다. 전장은 실족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 최대한의 영혼을 구제하는 것입니다.”²⁹⁾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과 ‘반’하는 사람은 ‘적’이며, 그들은 타협과 대화의 대상이 아닌 타도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근본주의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가 필수적이라고 이미 위에서 밝힌 바 있다. 역설적으로, 그 변화하는 현상에 ‘반’하여 고정된 틀, 곧 과거나, 정전이나, 교리로 회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근본주의는 확장하는 것이다.

스티브 브루워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근본주의자들이 정치세력화하는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했다”³⁰⁾고 말했지만, 그의 글이 쓰인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근본주의자들은 “기독교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적극적 정치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2월 보수적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기총 상임대표는 “대선후보 검증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기독교 정책을 통해 후보를 검증하고 투표의 기준을 제시할 겁니다.” 개신교계 최대 교단연합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용규 대표회장이 이번 대선에서 개신교적 시각에서 후보들의 정책 검증 및 투표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해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보수적 단체인 한기총이 선거 과정에 개입할 경우 다른 교파나 종단도 선거 개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례적으로 종교가 선거에 공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은 14일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예전 대선에서는 (교계가) 옆드려 기도만 했지만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 정책을 마련해 이를 후보들에게 제시하고 정책을 수용하는지, 대통령이 된 뒤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독교 정책을 만들고 제시하는 ‘기독교 정책 포럼’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우리는 절대로 어느 정당이나 후보 개인에 대해 편향적으로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어느 후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³¹⁾

위에서 릭 워렌 목사가 오바마와 매케인을 검증하였듯이, 이들 역시 검증의 틀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미 ‘장로’ 목사에게 대한 지지를 선언한 셈이었다.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를 벤치마킹을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뉴라이트’라는 우익 정치세력이 형성되고 있으며, 현재 기독교는 이들 집회의 인원동원을 담당하는 주요한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상임의장은 현재 두레교회 담임목사인 김진홍으로 이미 기독교 근본주의가 정치화의 길로 탄탄하

29) Brouwer and others p.118. Quoting, Paul Yonggi Cho, “How the World’s Biggest Church Got That Way,” *Christianity Today* 5, 18, 1984, p.53.

30) Brouwer and others, *op.cit.*, p.45-46.

31) <한기총 대표회장 “기독교정책 제시해 대선후보 검증할 것” > 《동아일보》 2007년 2월 15일자 23면

게 들어서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문제로 촛불 집회가 한창이었던 지난 8월 미국 대통령 부시의 방한이 있었다. 촛불집회의 여파 속에 부시 방한 반대집회가 열렸고 동시에 부시의 방한을 환영하는 보수단체의 집회도 열렸다. 보수단체의 집회풍경을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국민행동본부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374개 보수 단체로 구성된 ‘부시 환영 애국시민연대’는 오후 6시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만여 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부시 대통령 환영 문화제’를 열고, 한·미동맹 강화와 촛불집회 종단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한·미동맹을 강화하라”, “애국 시민이 좌파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주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이두훈(71)씨는 “6·25 때 농부였던 작은아버지가 반동분자로 몰려 죽창에 찔려 죽는 모습을 봤다. 미국이 없었다면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미 공조가 불가피한 나라에서 반미운동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나왔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7시55분쯤 집회를 마치고 자진 해산했다. 앞서 오후 3시40분쯤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나라 사랑 특별기도회’도 열렸다. 기도회에는 양산을 든 주부들이 대거 참석해 서울광장은 한때 양산 물결로 뒤덮이기도 했다.³²⁾

한기총에서 주도한 ‘기도회’는 오후 3시 40분쯤에 시작 되었고 ‘이어서’ 본 집회가 있었다. 인원동원의 형태인 것이다. 혼돈과 변혁의 상황을 두려워하며 과거 있었던 반공의 시대, 산업화의 ‘전통적’ 시대를 ‘선’으로 생각하는 근본주의적 심리가 보수적 기독교 신앙과 결합하여 연대하고 있는 것이다. 공포와 불안은 이렇게 전염된다. 바로 이 ‘전염’이 뉴라이트라는 우익적 정치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며, 정치참여에 근거한 ‘근본주의’ 기독교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신앙세계 9월호에서는 “다원화사회, 기독교에 대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특별 인터뷰를 실었다. 잡지의 보수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제목은 “다원화사회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내용을 담기보다는 다원사회 자체가 기독교에 대한 도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시 다원사회에 대한 ‘불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 언론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칼빈대의 이억주 교수와의 인터뷰 전에 신앙세계는 자신들의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SBS는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다큐프로그램을 4차례에 걸쳐 방영했다. BS가 제작의도에서 밝힌 ‘종교간 이해와 평화’라는 목적과는 달리 프로그램의 내용은 기독교교리에 대한 왜곡과 편해로 채워졌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이슬람 종교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접근했다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부정성을 부각시키며 이슬람종교를 평화의 종교로 선전했다... 대채위 김승동 목사는 “SBS는 한국교회의 근간을 흔든 엄청난 우를 범한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연합하지 못해 발생한 일인 만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 힘을 합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호진 박사는 “이슬람이 한국을 2020년까지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들의 설계대로 착

32) 〈‘부시, 서울 오던 날’ 도심 찬반시위〉 《조선일보》 2008년 8월 6일자 제 9면.

착 진행하고 있다”며 이슬람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안을 주문했다.³³⁾

‘이슬람’의 시각으로 ‘기독교’를 이해했다고 비판하면서, 이 모든 일이 교회가 연합하지 못해서 곧 단결된 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시각의 뒤편에는 한국이 ‘이슬람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비판은 입장을 바꾼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이다. 이슬람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이해했다고 하지만, 이 기사의 인터뷰에 나온 이억주 교수는 기독교적 편견에서 이슬람을 이해하고 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이슬람 인구가 1% 정도의 소수일 때는 평화종교로 선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5%가 넘어서면 적극적인 포교를 시작하여 10%의 비율이 되면 포교를 위해 폭력도 불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더군다나 이슬람 진리를 위한 폭력은 그들의 교리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지하드가 되어 테러를 벌이게 되는 것이지요.³⁴⁾

이억주가 주장하는 수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는 이슬람 안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 이슬람을 근간에 깔고 있으며, 이슬람=폭력종교라는 오리엔탈리즘적 인식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하드라는 것도 ‘내면’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지 대상에 대한 폭력을 말하지 않는다. 그의 내면에는 기독교=평화의 종교, 이슬람=폭력종교라는 편견이 숨어 있는 것이다. 또다시 이슬람이라는 ‘타자’를 만들어 놓고 이를 옹호한 SBS와 이 방송을 보았던 사람들이 형성하는 인식에 ‘반反’하여 ‘교회’를 지켜나가겠다면서 ‘운동’하겠다고 한다. “이슬람문명이 한국에 낫설고 이질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슬람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일과 오일머니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국경제에 무시 못할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슬람은 오일머니를 통해 매일 7억불 정도의 선교비를 쓴다고 합니다... 남침례교는 1년에 5천억 원 정도를 쓰는데...”³⁵⁾ 이 발언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결국 한국에서의 이슬람 개종자들은 이 ‘오일머니’에 현혹된 사람들이며, 이 ‘악마’의 종교는 어마어마한 공포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슬람에 ‘반’해서 기독교 전통교리에 입각해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며, 이들과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SBS와 이슬람에 대한 옹호 발언은 곧 이들의 ‘적’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의 정치현상은, 기독교의 복음 곧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류의 구원”이라는 절대 사랑의 메시지와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애초에 기독교의 변치않는 5개 교리를 지켜낸다는 근본적 취지에서도 벗어나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메꾸어 나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33) 이억주, 「다원화사회, 기독교에 대한 도전과 응전,」 『신앙세계』 2008년 9월 482호, 12쪽.

34) Ibid. 14쪽.

35) Ibid. 15쪽.

나오는 말 (‘반’을 중심한 사유의 극복을 위하여)

위에서, 필자는 근본주의의 가장 주요한 문법을 ‘반反,’ 곧 진보적이나 자유주의적 성향에 ‘반’한 ‘보수운동’이라고 하였다.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건, 자유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건 혹은 중도적 시각을 가지고 있건 삶은 개인의 영역이다. 그렇지만, 근본주의적 ‘운동’이 확산되어 나갈 때, ‘반’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 위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변신환 교수가 교단에서 출교 당했다. 단군상 훼손, 불상 훼손, 타종교에 대한 비방 등 기독교 근본주의는 타자에 대한 공격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에 불교계는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집단 반발을 하고 있다. 기독교의 ‘교리’와 더욱 실질적으로 ‘교회’를 수호하겠다는 이들의 발상은 결국 기독교의 본질, 곧 사랑과 화해 대화와 화합이라는 기초를 스스로 허물어 뜨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주의는 종교현상에서 정치현상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이다.

근본주의가 ‘반’이라는 중심 문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반’에 내재한 심리적 현상은 ‘두려움’이다. 즉 변화하는 문화와 다원적 세계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정된 교리나 전통에 절대가치를 두며 안주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트라피스트 수도사인 토마스 머튼은 “전쟁의 근원은 두려움”이라고 했다:

모든 전쟁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갖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갖는 두려움, 그것은 그들이 단지 서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돌아서서 그들을 죽일는지 그들이 모른다면 그들은 언제 돌아서서 자신을 죽일지는 더 모릅니다. 그들은 아무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느님을 믿기를 그쳤기 때문입니다.³⁶⁾

머튼에 의하면, 전쟁의 뿌리는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은 타자에 대한 불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지배하고 있으며, 좀 더 영성적으로 절대자에 대한 믿음의 상실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이 두려움이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는 것이 전쟁이다. 전쟁이라는 대규모의 폭력이 아니더라도, ‘반’의 기초는 믿음의 상실로 인한 두려움이라는 것이다.

미국 뉴욕주의 알바니 프리스쿠울 교사인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는 두려움에 기초한 관변교육에 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두려움이란 무서운 놈이다. 게다가 더욱 가공할 만한 것은 그것이 스스로를 증식시키는 방식이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더 심각하게 두려움에 이끌려 움직이는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이는 부인하기 어려운 슬픈 현실이다. 전쟁과 테러의 두려움, 핵무기와 경제공황에 대한 두려움, 빈곤, 노화, 죽음의 두려움, 하나 하나 예를 들자면 몇 쪽에 이를 정도다. 보험에서부터 방범산업에 이르기까지

36) 토마스 머튼, 오지영 옮김, 『새명상의 씨』 서울: 가톨릭 출판사, 1999, 121쪽.

우리의 국가 경제를 이루는 기초 분야는 그에 대한 방어책과 예방책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재료들과 온갖 상상력이 동원된 별별 발명품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며 이러한 두려움을 먹이로 삼고 있다. 두려움은 이제 성장 산업이 되었다.³⁷⁾

근본주의가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반’하여, 두려움을 양식으로 살아나간다면, 이 두려움에 연결된 보험산업과 군수산업은 이 두려움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려움이 종교적 영역에 이식된다면, 종교적 보수주의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근본주의적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는 “두려움과 배움은 최악의 댄스 파트너”³⁸⁾이라고 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메르코글리아노는 ‘신뢰’를 말한다:

두려움을 다스리는 해독제는 신뢰다. 이 약은 불행히도 오늘날의 그 많은 약품들과 달리 캡슐에 담겨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신뢰에 이르는 쉽고도 빠른 10단계 같은 자가치료용 매뉴얼 같은 것도 본 적이 없다. 돈을 들여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은 물론 없다. 신뢰는 얼마만큼은 미지의 뭔가와 연관되어 있고 미지의 것은 당연히 위험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신념을 갖고 전폭적인 믿음을 보여 줄 때 훨씬 빨리 또 쉽게 배우고, 그 배움은 특정한 기간 안에 끝나지 않고 평생을 두고 이어진다.³⁹⁾

반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은 결국 사람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다. 교육은 이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그녀의 비형식적이고 유기적으로 조직된 프리스쿨이 탄생한 것이다. 이 신뢰의 근간에는 아이들 모두 “저마다 이미 신이 부여한 무한한 잠재능력이 있으며, 우리가 흔히 배움이라 부르는 것은 그 잠재능력의 자연스런 전개”⁴⁰⁾라고 한다. 반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교육에서, 타자에 대한 신뢰, 신이 부여한 능력에 대한 신뢰, 궁극적으로 개체를 포괄하는 신에 대한 신뢰가 그녀의 교육철학을 형성하고 있다. 그녀는 체코의 전 대통령 바슬라프 하벨의 입을 빌어 현 생태계의 위기에 초점을 맞추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비록 우리 인간이 우주의 온갖 양상과 신비롭게도 관련되어 있지만—에 대한 심오한 인식을 되찾지 못한다면, 그리고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 창조보다 훨씬 위대한 궁극적 의미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되찾지 못한다면 그 운명은 피할 수 없다.⁴¹⁾

37)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 공양희 역,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출출 수 없다』(서울: 민들레, 2006), 126쪽.

38) Ibid. 140쪽.

39) Ibid. 141~142쪽.

40) Ibid. 135쪽.

41) Ibid. 183쪽.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녀는 종교에 ‘대한’ 교육이 아닌 종교‘의’ 교육을 설명하고 있다:

바슬라프 하벨처럼 그리고 많은 점에서 우리에게 선구자가 되는 19세기의 초월주의자들처럼 프리스쿨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나날의 삶 속에서 초월적 차원과 맞닥뜨리는 기회를 갖는 일이 절박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종교를 ‘가르치는 일’ 같은 행위를 삼간다... 반면에 신성을 감지하고 높은 힘을 지각하고 또 이 세계가 내적으로 연결되고 관련 맺고 있다는 느낌을 체험할 기회를 아이들이 가질 수 있게 하려고 사방을 살피고 있다. 그 초월적 차원을 뭐라고 형용하든 마음에 드는 이름을 고르면 된다.⁴²⁾

종교에 대한 교육, 종교를 대상화시켜 교리와 신앙체계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초월자를 느끼고 자각하고 우리 모두 하나라는 느낌을 체험하라는 종교 ‘의’ 교육, 영적 교육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초월자에 대한 느낌과 신뢰, 그 존재가 모두를 통합한다는 신뢰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종교에 ‘대한’ 교육과 이에 내재한 ‘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종교‘의’ 교육이며, 나의 내면과 나를 초월한 존재에 대한 느낌과 자각을 교육하고, 그가 모두를 포용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영성적 교육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바로 이러한 대안적 사유가, 현 근본주의의 문제와 같이, 종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종교로 인하여 평화가 도래한다는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2) Ibid, 183~184쪽.

참고문헌

- 김홍도, '자유주의 신학은 사탄의 가장 큰 도구,' 『불기등20』, 서울: 불기등사, 1993.
- 토마스 머튼, 오지영 옮김, 『새명상의 씨』 서울: 가톨릭 출판사, 1999.
-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 공양희 역,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 서울: 민들레, 2006.
- 마샬 버만, 윤호병, 이만식 옮김, 『현대성의 경험』 서울: 현대미학사, 2004.
- 이억주, 「다원화사회, 기독교에 대한 도전과 응전」, 신앙세계」 2008년 9월 482호.
- 이원규, 「개신교 근본주의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이해」, 『신학과 세계』 1995년 봄 30호.
- 「조선일보」 2008년 8월 6일자.
- 「중앙일보」 2008년 7월 1일자.
- 「크리스천 투데이」 2008년 8월 18일자.
- Ammerman Tatom Nancy, *Bible Believers: Fundamentalists in the Modern World*, (London: Butgers University Press, 1987).
- Anderson, Gerald H., "American Protestants in Pursuit of Mission: 1886-1986," in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 12.
- Brouwer, Steve and Others, *Exporting American Gospel*, (London: Routledge, 1996).
- Bruce, Steve, *Fundamentalism*, (MA: Blackwell, 2000).
- Giddens, Anthony, Introduction to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London: Unwin, 1904).
- Griffis, William E., *A Modern Pioneer in Korea: The Life Story of Henry G. Appenzeller*,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12).
- Heelas, Paul and Woodhead, Linda, *Religion in Modern Times*, (London: Blackwell 2000).
- Hulbert H.B?, *Confucianism in Korea in The Korean Repository*, 403-404, November, 1894.
- McGrath, Alister, *Modern Christian Thought*, (London: Blackwell Publishers., 1993).
- Marty E. Martin and Appleby R. Scott, *Fundamentalism and the State*,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3.
- Noll, Mark A.,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2).
- Philips, Kevin, *American Theocracy: the Perils and Politics of Radical Religion, Oil and Borrowed Money in the 21st Century*, (London: Penguin, 2006).
- Vinton, C.C., *Obstacles to Missionary Success in Korea in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841, December, 1894.

원고접수: 2009년 1월 20일 1차심사: 1월 29일 게재승인일: 2월 4일

연구자 소개: 최대광

① 전공: 종교학 / 소속: 영국 Lancaster 대 종교학 Ph.D. 감신대 강사

② 관심영역: 문화학, 영성 (신비주의)

③ 주요논저: 21세기와 한국적 영성의 과제 / 세계신학적 관점에서 본 이용도 목사의 영성과 신학 / 창조영성과 영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 / 이용도와 아나키즘 / 뉴에이지의 이해 / 기독교 근본주의를 넘어서: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교육적 대안 / 타자화된 변신환 / 창조영성적 시각에서 본 생태주의 / 도시에서의 영성생활: 뮌헨을 통해서 본 영성신학의 재구성 / 최병헌의 근대화 프로젝트와 현대의 최병헌 프로젝트 / Rev. Yi Yongdo's Spiritual Biography

④ E-mail: d-kchoi@hanmail.net

Abstracts

Beyond Christian Fundamentalism
—Critics on American as well as Korean Christian
Fundamentalism and an Alternative Idea of Education
to the Fundamentalism—

Choi, Daekwang

Lecturer,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Although there has been various discourses about fundamentalism, we seldom find clear definition on fundamentalism so far. This thesis defines what fundamentalism and analyzes how it produces diverse effects in society and culture. This thesis argues that whe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relative values have dominated modern culture, people turns to security, which instigates the birth of fundamentalism. When this conservative value becomes political movement, we finally calls it ‘fundamentalism.’ This thesis analyzes American and Korean Christian fundamentalism. This thesis finds the origin of American Christian fundamentalism from the combination of shaking modern identity and popular Calvinistic idea. In addition, this thesis also illustrates the development of fundamentalism in George W. Bush government of the U.S. In addition, this thesis describes how the fundamentalism in America has been transferred to Korea. Korean fundamentalists bench-marks those of America, and actively participate in matters of politics. In conclusion, this thesis suggests pluralistic education to get beyond the culture of fundamentalism.

Key words : Fundamentalism, Religion, Cultural Studies, Education